1. 팀이름

: 여름에 갑작스럽지만 열정 넘치게 시작한 동아리의 뜻을 담아 summer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활동 주제 및 선정이유

: 저희 전공은 컴퓨터과학과, AI융합학부로서 it계열에서 가장 유망한 웹사이트를 개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은 음식을 주제로 THE FOOD라는 웹사이트를 활동 주제로 정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공부 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배포하여 일반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실제 개발 직무의 현장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1. 활동목표와 그에 따른 과정 계획

: 웹사이트의 기본 양식을(로그인, 회원가입, 게시글 작성 등) 따라 개발하고 주위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보수하여 더 가치있는 웹사이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지금까지 활동 내용 및 과정 공유

(개발한 것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를 올리는 카테고리, 일상을 공유하여 오늘 뭐 먹었는지 꿀팁 같은 것을 적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맛집 카테고리에서는 지역별로 무슨 맛집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카테코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게시글이 시험삼아 복제해놓은 것이라 내용이 똑같지만, 나중에는 사용자들의 게시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현중입니다.

1. 앞으로의 활동 계획 공유

: 앞으로 오류난 부분을 수정하고, 완벽하게 다듬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에게 배포가 불가능한 버전인데, 서버를 사서 링크로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1. 느낀점

: 동아리를 7월 초에 시작했는데, 8월까지 한달 간은 거의 베이스가 둘다 없어서 공부만 했습니다. 보여진 결과물이 보름정도 개발한 것이라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달 반동안 거의 매주 두 세번씩 만나서 6~7시간씩 활동하였고, 따로 집에 가서도 매일 과제로 코딩을 하면서 팀원과 돈독해진 것 같고, 코딩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